광야를 벗어난 광야적인 삶

(신11:1~32)

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5.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광야를 벗어난 광야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광야를 벗어난 광야적인 삶'

사십년의 혹독한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생활은 회상하기도 두렵고 지긋지긋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지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광야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광야에서의 사십년은 simulation(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들이 처음부터 조종간을 잡을 수는 없어서 비행기 조종실과 똑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조종사로 교육을 시키는 것과 만찬가지로, 광야는 복지를 살기 위한 훈련장이었으므로 복지에서 살 때에 광야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 복지로 들어가 살지만 복지적인 삶을 살지 말고 광야적인 삶을 살라는 것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언젠가도 저의 작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해를 더해 갈수록 의미의 중요성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영락교회의 부목사로 흑석동 교구를 맡고 있었을 때, 산동네에 폐암 걸리신 할아버지께 병상 세례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 병상 세례를 받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다리신다는 구역장님의 부름을 받고 가서 병상 세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뺏어서 하십니다.
'평생 가정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져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정말 죄인 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용서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신앙 고백에 대한 질의응답은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므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누워서 손을 공중에 뻗으시더니 얼굴이 발갛게 화색이 돌아오십니다. 손을 막 휘저으시기에 제가 손을 꼭 잡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앉아계신 구들 밑으로 구름이 와서 자기 밑으로 지나간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구름 위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건이 제 평생을 따라 다니면서 그 의미를 더해갈 것 같은데, 여러분도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땅과 하늘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경계가 삼팔선이듯이, 하늘과 땅을 구분 짓는 경계는 구름으로, 구름 아래가 땅이고 구름 위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고 저와 함께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바랄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한없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생애의 30~40살에 다가왔더라면, 많이 늦춰서 60살에라도 다가왔더라면 삶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0살에 세례를 받아 자기 힘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난다고 칩시다. 세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30살 때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폐암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의 얼굴빛이 돌면서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폐암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30살부터 살아오셨다면 마음은 계속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모든 교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의 말씀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문단마다

첫 머리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마음이 구름을 올라타야만 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뭘 좀 얻고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구름에 올라가신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 상태로 복지를 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사는 것이 광야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광야적인 삶'의 내용은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뜻하는 바는 '우리 마음은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불기둥'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이 그 할아버지처럼 구름 위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라는 것인데 바로 광야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복지에 들어가서도 광야적인 삶을 살아야만 복지가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지가 복지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2~6절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은 고라 자손이 앞에서 얘기되었었는데 고라 자손을 빼고 얘기한 것은 레위 족속 말고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반역사건이 있었음에도 이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으로 땅이 벌어져서 반역자들을 삼킨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라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끌어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광야에서도 먹고 살도록 필요한 물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이 두 가지

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의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삼킨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삼켜진 사건의 내용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분수를 넘었습니다. 이 분수를 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기억하는 것과 맞물려 갑니다.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야 될 일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분수를 넘는 것으로, 가장 위엄하고 존엄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말은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펴신 팔이 임해야 될 일에 내가 손을 대고 내가 팔을 펴는 것이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과 '너희가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키면 되는데 도대체 분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선민인 주제에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제'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위로 벗어나는 것도 있고 아래로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일을 광야에서 먹이신 일을 기억해서 절대로 네가 벌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데 주제를 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노예가 되어도 주제를 아래로 넘는 것이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겠다고 여기는 것도 위로 주제를 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키는 내용이 뭐라고요? '노예가 되지 말자. 이 땅의 것은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요3:27절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성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 또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반복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려면 내 마음이 구름 위 하늘로 올라가야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데 구름기둥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을 때에, 성공하고 싶을 때에,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교훈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고 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름 위에 있으면 구약부터 신약의 산상수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면 그냥 지켜진다는 것인데 그렇게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은 국토를 가로질러서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을 근원으로 해서 관개사업이 발달된 곳이고 따라서 문명도 발달한 곳입니다. 인간이 만든 관개시설로 비옥한 땅에 파종을 해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평지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으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 년 단위로 산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불기둥이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이 반드시 구름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광야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물을 대면서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만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이 땅에서 물대고 수확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을 대고 우리의 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는 대로만 살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봅니다.

13~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수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른 비, 늦은 비로 수확이 많아지는 삶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수확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애쓸 수가 없었던 것처럼 애쓰지 말라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지 이른 비 늦은 비로 인해 곡식이 풍성해지는 삶을 목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풍성해지는 삶을 목적한다면 우리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29절의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복으로 충만하지도 않지만 저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 중간쯤에 무언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축복 된 삶이거나 저주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중간쯤이라고 느낄까요? 바로 저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인데 노예로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자식 일이 안되면 불행하다고 하는데 다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상 가치가 없으면 걱정불안근심으로 찌드는 것,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들을 얻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이고 노예의 삶인데,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뛰는 삶이 저주인지를 모르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저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은 빈 곳을 채우기 위해 흡입력을 갖고 구름 아래 갇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끌어들이는데 이것이 세상 가치의 노예 상태이고 저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해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하고, 믿음도 노예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쓰지 않고 뜻도 쓰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으로만 이끌어져 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주는 대로만 받고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떠나야 되고 구름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18~2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이고 '마음이 구름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왜 하늘에만 계십니까? 천지에 가득 찬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구름 위의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는 말은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물속에 던져 놓으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구름 위에 올라간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구름을 딛고 서있기 위해 발버둥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났다고 해도 우선 복지를 살려면 광야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름 위로 마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난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을 쳐서라도 구름 위에 올라가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위에 머물러 있으면 불기둥이 뜻하는바 불꽃같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면서 필요한 바를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하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 마음은 구름 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구름 위에 머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냐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서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들어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붙어서 석 달은 하늘을 날게 됩니다. 직장에 가도 마음은 아들딸이 서울대 들어갔다는 사실에 붙어서 일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항상 웃음이 나오고 누가 뭐래도 신경질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이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사실에 마음 붙이고 직장에 가고 동창회 가고 거래처 가고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기쁨으로 가득 차 버린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의 꿈이 이 세상에서 관직하나 얻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계신 것을 보고는 그렇게 좋았던 꿈과 비전을 휴지조각처럼 버리고 거기에서 머물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위에 올라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았

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구름 위의 일을 30살에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들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통일도 시키셨을 지도 모르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도 항상 하늘에 마음을 두고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기쁨을 표현하고 살았다면, 저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얘기하며 살 것입니다. 이게 복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사는 땅입니다. 우리가 물대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수를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이 땅에 머물러 노예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구름 위에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므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서 광야적인 삶을 살아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받듯이 이 땅은 불기둥이 상징하는바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니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너희가 물대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해요? 왜 못해.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서클을 돌면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으셨던 주님의 행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사명이 이루어질 것인데 몇 분이 걸린다고 이걸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은 구름 위에 머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지켜지게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쨌든지 노예생활 하지 않고 분수 넘지 않고 구름 위에 가 있어야 하고, 내가 이 땅의 일을 하겠다고 분수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구름 위에 마음이 머물러서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만 진행되어 지는 복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